

경주시, 외국인·다문화 정착지원에 19억 투입

외국인 주민, 전체 인구 9.7%
내년도엔 취약·위기 가족 발굴부터
E-7-4R 비자 동반가족 지원도

경주지역 외국인·다문화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경주시가 정착 지원 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경주시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교육·상담·일자리·가족 지원 등 종합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경주지역 다문화 가구는 6827명이며, 이 가운데 결혼이민자·귀화자가 2142명, 다문화 자녀가 1926명이다. 같은 기간 외국국적동포와 고려인을 포함한 외국인 주민은 2만 698명으로 전체 인구의 9.7%에 이르러 경북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시는 다문화·외국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정착 지원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주시는 올해 19억원을 들여 다문화가족 지원 23



제24회 지구촌 축제 한마당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오른쪽 네 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개 사업과 외국인 주민 지원 11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취약·위기 가족을 발굴해 상담·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온가족보듬 사업’과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동반가족을 위한 ‘희망이음 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지원 폭을 넓힐 계획이다.

정착 지원의 핵심 기관인 경주시가족센터는 초기 적응부터 자립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통·번

역과 한국어 교육, 방문교육,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 이중언어강사 양성 등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이 대표적이다.

또 맘코치 방문 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부모 교육 등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언어발달 지도, 교육비·활동비 지원, 위기 가정 흡발터 서비스, 이중언어교실 등 자녀 학습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경주시는 올해 처음 시행된 E-7-4R 비자 전환 추천 제도에서 영천시와 함께 도내 최대 규모인 130명 쿼터를 배정받아 11월 말 기준 101명을 추천했다. 시는 산업 현장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체류와 가족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상담·지원센터 4곳을 운영해 노동·법률·생활 상담, 13개국 통·번역, 한국어 교실, 안전교육, 쉼터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축제, 축구대회, 외국인 유학생 치안봉사대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 행사도 매년 이어지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외국인 주민은 인구 감소 시대 경주의 소중한 이웃이자 지역 산업을 지탱하는 든든한 동반자”라며 “숙련 인력 유입과 가족 정착 지원은 지역경제 유지와 인구 유입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12일까지 ‘부산인권주간’ 운영

부산시는 10일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기념하며,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2025 부산인권주간’을 1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일상생활에서 인권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매년 12월 10일 전후를 ‘인권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인권주간’에 인권콘퍼런스, 시민인권특강, 북토크, 영화 상영, 포럼 등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사회 전반에 인권 이해와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창원특례시

51.5억 규모 모바일 누비전 판매

창원특례시가 연말을 맞아 가게 부담을 낮추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모바일 누비전을 대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시는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51억 5500만원 규모의 모바일 누비전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할인율은 13%를 적용하며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번 발행 물량은 올해 들어 마지막으로, 지난 8월 이후 중단됐던 판매를 재개하는 것이다. 시는 연말 결산 과정에서 8월 판매 중단 후 남은 예산과 11월 캐시백 행사에서 쓰이지 않은 예산 등을 모두 끌어모아 재원을 마련했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완도군

우수 해수욕장 ‘신지 명사십리’

전남 완도군의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이 해양수산부 주관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됐다.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은 4km에 달하는 고운 모래 해변과 아름다운 해안 경관, ‘공기 비타민’이라 불리는 산소 음이온이 도시에 비해 50배 이상 풍부하고, 인근에는 해송림과 황토길도 있어 해마다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 8년 연속’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변에만 주어지는 국제 인증인 ‘블루 플래그’를 받았다.

올해는 이용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강화 및 편의 시설을 개선하는 데 힘썼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대구시교육청

위험성평가서 4개 기관 ‘우수’

대구시교육청은 대구학교지원센터, 대구미래교육연구원, 대구교육박물관, 대구교육연수원 등 산하 4개 직속기관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경영자의 관심도, 위험성 평가 실행 수준, 구성원 참여도, 재해율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90점 이상 받은 사업장을 엄선해 공식 인정하는 제도로 마련됐다.

인정을 획득한 사업장은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해 안전보건 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사천시, 해양·수산 공모사업 연속 선정

삼천포항, 신수항, 광포만 등
최근 3년간 총 650억 규모 사업 추진

사천시가 올해 해양·수산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며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다.

서포면 다평리 일원의 어촌뉴딜300 사업은 총 62억 7500만원이 투입돼 연내 완공을 앞두고 있다. 방파제 및 교량 정비, 힐링존 조성 등 어촌 생활·관광 기반을 함께 강화하는 복합 프로젝트다.

사천시는 최근 3년간 해양·수산부 주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연속 선정됐다. 2023년 광포항·안도항·상촌항, 2024년 중촌항, 2025년 삼천포항이 선정되며 총 650억원 규모의 지역 혁신 사업이 추진된다.

삼천포항에는 해양·수산물플렉스, 로컬푸드빌리지, 행정봉사실, 수변테크 및 경관 조명 등이 조성돼 해양 관광·어업·물류가 결합된 복합 항만으로 발전한다.

신수항은 CLEAN 국가어항 조성 공



삼천포항(신항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조감도. /사천시

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총 191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진행되며 어민문화회관 신축, 열린공원 조성 등 친환경·문화융합형 국가어항으로 탈바꿈한다.

2023년 10월 광포만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에 총 45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7월 취항한 신형 어업 지도선 사천바다호는 총 32등급, 최고속력 30노트로 행정 지원·순찰·구조 활동 등 다목적 기능을 수행한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영암군, ‘국제 바둑연수원’ 건립 박차

총사업비 380억 투입

영암군은 국·도비 258억원을 확보, 세계 바둑 메카로 자리매김할 ‘국제 바둑연수원’을 건립한다.

지난 2일 국회가 의결한 2026년도 정부 본예산에는, 국제 바둑연수원을 포함한 1339억원 규모의 영암군의 5개 핵심사업 예산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380억원이 투입되는 국제 바둑연수원이 영암군에 들어선다.

특히, 이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공약으로 바둑을 매개로 한 영암 핵심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년 정부 예산에는 국제 바둑연수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원

이 반영됐다.

영암군은 이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연면적 1만 1000㎡ 규모로 세계 수준의 바둑 복합 연수시설을 조성한다.

인공지능(AI) 기반 바둑교육원, 국제대국실, 인재교육관, 바둑기념관 등을 갖춘 스포츠 인프라를 기반으로 교육·체험·관광을 연계한 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과 시뮬레이션 훈련시설, 데이터 기반 연구환경 등 4차 산업 맞춤형 바둑 훈련 체계를 구축해, 차세대 바둑 인재 육성 및 국제 교류의 중심지로 키워간다는 방침이다. /영암(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경남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7곳 선정

국비 17억5000만원 확보

경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공모에 산청 1곳, 거창 3곳, 합천 3곳 등 도내 7개소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지의 보행로, 경사로, 이용·편의시설 등 개·보수, 체험형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 경남은 ▲산청군 동의보감촌 ▲거창군 거창수승대관광지, 창포원, 향노화힐링랜드 ▲합천군 정양늪생태공원, 정양테포츠클럽, 회양관광지 등 총 7개소가 선정돼 국비 17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경남도는 2015년부터 2024년 공모(2025년 사업)까지 총 23개소가 ‘열린



경남 산청군 동의보감촌 풍경.

관광지’로 선정됐으며, 이번 7개소 추가에 따라 열린관광지는 총 30개소로 늘어났다.

선정된 관광지는 향후 장애인 당사자와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전문가의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거쳐 각 관광지 특성에 맞는 시설 개선과 관광 취약계층 유형별 체험 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이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북도, ‘내수면관광어비즈니스센터’ 개소

총사업비 190억 투입

경북도가 8일 상주에 내수면관광어비즈니스센터 개소식을 갖고 관광어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내수면관광어비즈니스센터는 총사업비 190억원(국비 95, 도비 95억원)을 투입해 부지 1만 4000㎡, 연면적 4538㎡ 규모로 건립됐다. 지상 1층에는 창업지원실, 관광어 교육 및 연구시설, 2층에는 전시홍보관을 갖춘 지자체 최초의 관광어 산업 전문 기관이다.

지나해 준공 후 단계적인 장비 구축과 운영 시스템 준비를 거쳐 이번 개소에 함께 운영을 시작한다.

센터는 올해부터 관광어 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현장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내년부터는 도내 창업 희망자와 업체 등 3곳이 이곳에 입주한다. 이곳은 관광어 사업 소재 발굴, 협업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관광어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